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액보험 투자 정보 가이드

변액보험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펀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됩니다. 카디프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금융시장 전망 등을 확인하고 변액보험을 관리해보세요!



CARDIF GUIDE <2018.12>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 본 자료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제공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및 투자결과에 대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8-181호(2018.12.04)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 투자심리 위축으로 안전자산 수요 증가

01

국내 주식

KOSPI 투자심리 위축은 지속 전망, 다만, 단기 급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승

- 단기: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향후 한국 수출 우려 등으로 KOSPI 시장은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부진한 흐름 지속될 전망. 다만 최근 KOSPI 급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은 시장 바닥 지지 예상
- 중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글로벌 무역분쟁 이슈에 KOSPI 투자심리 위축은 지속될 전망. 다만 단기 급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승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등은 KOSPI 레벨 지지 전망

02

국내 채권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하지만 미 금리 추가 인상은 여전히 부담 요인

- 단기: 1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후 12월에는 금통위가 열리지 않음. 따라서 대외재료와 수급의 영향력 확대 전망. 12월 채권시장은 FOMC 경제심리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과 우호적 수급 등으로 박스권 장세 전망
- 중기: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에 따른 대내외 금리역전폭 확대에 내년에도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논란 지속 전망. 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 국내 금리인상 횟수는 많아야 1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

03

선진국 주식

미국의 연말 쇼핑시즌 도입과 정치 불확실성 해소는 연말 투자심리 회복 요인

- 미국: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과반의석을 유지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는 대체로 유지될 전망. 연말 쇼핑 시즌이 가까워진 가운데 소비심리 높은 수준 지속. 미 정치 불확실성 해소 및 양호한 소비는 연말 위험자산 투자심리 회복 기대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
- 유럽: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싸고 이탈리아 정부와 EC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등 정치적 이벤트는 투자심리 제약.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매크로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그동안의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개선은 긍정적

04

신흥국 주식

미-중 무역분쟁 리스크가 상해 증시에 계속적으로 노이즈

- 인도: 올해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인도 주가지수의 우호적인 시각은 지속될 전망. 다만 이머징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와 높은 유가 레벨이 시장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음
- 중국: 미-중 무역분쟁 리스크가 상해 증시에 계속적으로 노이즈로 작용. 이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점도 부정적. 다만,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확대는 증시 바닥 지지할 전망

05

해외 채권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리상승 압력 존재. 하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금리상승 제약 가능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계속되는 점은 금리 상승 압력. 다만 유가 급락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소 약화. 이에 더해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신흥국 투자심리 약화가 안전자산 수요로 유입되며 금리 상승 제약 가능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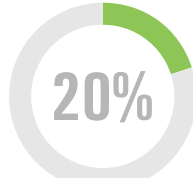
원자재

유가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금 가격은 우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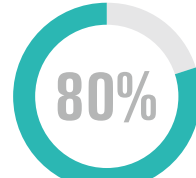
- 에너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 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 등으로 유가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 다만 최근 유가 하락이 과도한 가운데, OPEC+의 감산 가능성 등은 유가 바닥 지지 전망
- 금: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금 가격은 우호적인 흐름 지속 전망. 달러화 강세 완화도 긍정적.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와 높아지는 미국 실질 금리는 금가격 상단 제한 전망

안정추구형 투자자

투자손실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입니다. 그래도 자산 중 일부는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마음은 필요합니다.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위험중립형 투자자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자세를 갖고 있는 고객입니다. 고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적절한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성장추구형 투자자

높은 기대수익을 위해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고객입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국내	주식	=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향후 한국 수출 우려 등으로 KOSPI 시장은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부진한 흐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KOSPI 급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은 시장 바닥 지지할 것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글로벌 무역분쟁 이슈에 KOSPI 투자심리 위축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단기 급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과 연준의 완만한 금리인상 가능성은 KOSPI 레벨 지지할 전망이다
	채권	-	1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당사 예상)한 후 12월에는 금통위가 열리지 않음. 따라서 대외재료와 수급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과 함께 점도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담요인. 반면 미 연방정부의 섣다른 가능성과 우호적 수급 여건(국고채 발행 규모 감소 및 바이백 확대, 회사채 수요예측 급감) 등은 채권수익률의 상승을 제한하는 재료임. 12월 채권시장은 FOMC 경계심리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과 우호적 수급 등에 기인해 박스권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11월 기준금리 인상(당사 예상) 이후에도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에 따른 대내외 금리역전폭 확대에 내년에도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다음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중 국내 금리인상 횟수는 많아야 1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 1) 민간 부문의 수요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율 둔화 등으로 내년 국내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2)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약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 따라서 레벨 부담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인상이 쉽지 않다는 인식 및 국내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2019년 상반기 채권시장은 강보합 장세 예상
해외선진	미국	+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과반의석을 유지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는 대체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말 쇼핑 시즌이 가까워진 가운데 소비심리 높은 수준 지속. 미 정치 불확실성 해소 및 양호한 소비는 연말 위험자산 투자심리 회복 기대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	아직 미국 중심의 경기 확장 흐름 연장 전망이 유효한 만큼 전면적인 주식 비중 축소에 나설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 신흥시장의 가격 매력이 높아졌으나 향후 선진국 중앙은행 통화 긴축 환경에서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 선진, 미국 중심의 분할 매수 접근을 추천
	유럽	=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싸고 이탈리아 정부와 EC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등 정치적 이벤트는 투자심리를 제약.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매크로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그동안의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개선된 점은 긍정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서서히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고, 시클리컬 업종 비중이 높은 유럽의 타격이 우려. 다만 그동안의 상대적 부진을 고려해 중립 의견 제시
	일본	+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하면서 선진국 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인 점이 긍정적.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일본은행의 완화적 정책 등으로 엔화 약세 압력 유지되고 있어 주가 하단 지지 판단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중인 가운데 엔화 약세는 기업 이익 전망에 긍정적. 보호무역주의 영향은 다소 엇갈리나 내수 개선 흐름이 나타난 점은 증시 체력 개선에 우호적 영향 미칠 전망이다

* 투자매력도 : + 확대, = 중립, - 축소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해외이머징	브라질	+	브라질 대선에서 친기업 성향의 보우소나루가 당선됨에 따라 브라질 증시 우상향 지속될 전망.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 이머징 자산 내에서 비교적 선방할 것으로 판단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브라질 증시도 변동성 확대될 것. 보우소나루의 당선에 정치적 리스크는 완화되었지만, 주식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 추가적인 정책에 주목할 필요
	러시아	=	최근 유가 급락에 따라 러시아 증시에 대한 매력도도 낮아진 상황. 다만 연준의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 완화는 달러화에 민감한 러시아 증시에 우호적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이에 따른 금융/상품시장 변동성 확대에 러시아 주식시장도 변동성 커질 전망. 다만 유가 급락에 따른 반등 가능성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완화되면 주식시장 바닥 지지될 것
	인도	=	내년도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인도 주가지수의 우호적인 시각은 지속될 전망. 유가 강세 완화도 긍정적. 다만 이머징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는 불안 요인	무역분쟁 이슈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가운데, 견조한 경제 성장 전망과 유가 약세는 인도 주가 상승 요인.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주식시장 상단 제한할 것
	아세안	=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ASEAN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 떨어뜨리는 요인. 다만 최근 달러화 강세가 주춤한 점은 주가 하락을 제한적일 전망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여전한 가운데 신흥국 자금 유출시 ASEAN 금융시장도 영향 받을 것.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중요. 완만한 인상이 ASEAN 증시 우호적인 흐름 보일 전망
해외이머징	중국	=	미-중 무역분쟁 리스크가 상해증시에 계속적으로 노이즈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점도 부정적. 다만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확대는 증시 바닥 지지할 전망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 이슈는 상해증시의 업사이드 제한할 전망. 무역분쟁으로 중국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부정적. 연말연초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강도에 따라 향후 증시 방향성 결정될 것
	홍콩	=	미-중 무역분쟁 우려와 중국 경기 둔화에 홍콩H도 변동성 확대 지속될 전망. 다만 과도한 주식시장 약세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주식시장의 바닥은 다소 지지할 전망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홍콩 주가지수는 변동성 확대 지속될 것.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양 강도에 주목할 필요
해외채권	채권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계속되는 점은 금리 상승 압력. 다만 유가 급락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소 약화. 이에 더해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신흥국 투자심리 약화가 안전자산 수요로 유입되며 금리 상승 제약 가능	트럼프 정부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단기물음 중심으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가능. 다만 중장기물음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유입으로 오펜트 제한 가능
대체투자	유가	=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 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 등으로 유가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 다만 최근 유가 하락이 과도한 가운데, OPEC+의 감산 가능성 등은 유가 바닥을 지지할 전망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원유 재고 증가, 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 등으로 유가는 상승 동력이 크지 않을 전망. 12월 OPEC 정례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 원유시장의 공급우위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가 감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유가 약세는 지속될 전망
	금	+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금 가격은 우호적인 흐름 지속할 전망. 달러화 강세 완화도 긍정적.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와 높아지는 미국 실질금리는 금가격 상단을 제한할 전망	금 매도 포지션이 과도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도 점차 유입되며 금 가격은 완만한 우상향 보일 전망. 연준의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

* 투자매력도 : + 확대, = 중립, - 축소

EUROSTOXX50 지수

유로존의 9월 산업생산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예상치보다 감소하며 부진한 지표를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영국 메이총리와 EU간 브렉시트 협상안의 의회 비준을 두고 영국 내부적으로 마찰이 지속되면서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며 브렉시트 관련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EU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HSCEI 지수

중국 10월 실물지표는 소매판매 부분이 아쉬웠으나 수출입을 비롯한 투자와 생산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정자산투자가 지난 8월을 저점으로 하여 3개월 연속 반등하였습니다.

10월 중국 수출증가율은 전년비 15%를 기록하여 시장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 7월부터 적용된 관세효과가 11월 지표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무역분쟁으로 인한 교역부문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과 미국의 협상재개의 움직임이 관찰되어, 정상회담을 통해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OSPI200 지수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2.8%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6년만의 최저치로 작년 경제성장률인 3.1%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올해 수출,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은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건설 및 설비투자 등 투자부문이 전년대비 감소하여 투자부진의 요인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규취업자수는 9만 명으로 작년의 31만 명을 크게 하회할 전망입니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 관련 긍정적 시그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역분쟁의 부분적 타협안 도출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증시 반전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어려운 용어... 한숨 쉬지 말고, 쉽게 알아보아요!

밸류에이션(Valuation)?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평가 가치를 이야기하며, 주식의 경우 PER(주가-순이익 비율)이나 PBR(주가-순자산가치 비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산업 군 안에서도 순이익 규모나 순자산 가치에 비하여 특정 주식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국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의 준말로 경제 정세나 경기 전망을 검토하며 통화공급량이나 단기 금리 등 단기금융정책의 목표를 결정하는 의사체이며, 위원회의 의사록은 미국 경기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 파악

이번 달 핫이슈 및 자산시장별 투자 전략 참고

STEP 01

나에게 맞는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 성향별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STEP 02

펀드 관리

수익률 관리, 투자위험 최소화를 위해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기능 활용

STEP 03

🔄 펀드 변경 안내

변경 유형



적립비율 변경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적립비율을 변경



투입비율 변경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적립비율+투입비율 변경

계약자적립금의 적립비율과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변경 방법



My Cardif

홈페이지 : www.cardif.co.kr
APP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카디프생명' 또는 '마이카디프' 검색



전화

콜센터 : 1688-1118



은행/보험사 방문

보험상품 판매사 **지점** 또는 **보험사 직접 방문**

기준일 「펀드 변경 요구일 +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 적용
*영업일 기준은 개별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 횟수 연 12회 이내 가능

수수료 없음(다만, 차후 약관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 가능)



📌 변액보험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액보험 계약은 중도해지 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